

		보 도 자 료		JEONJU IFF
배포일	2026. 6. 15	보도 요청일	2026. 6. 15	
답 당	홍보미디어팀	취재 문의	1899-5433 (홍보미디어팀: 4번) publicity@jeonjufest.kr	

전주에서 시작된 영화들, 세계 무대로 향하다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시네마프로젝트

TIFF 시네마테크·보자르미술관 순회상영

- 봉준호·아피차퐁 위라세타쿤·홍상수 감독 등 국내외 거장 감독 초기작 상영
- 제작·투자·배급 아우르는 전주시네마프로젝트,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 세계 주요 예술영화 기관과의 협업으로 국제 교류 확대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작품을 지난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토론토국제영화제(이하 TIFF) 시네마테크와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벨기에 브뤼셀 보자르미술관(BAOZAR)에서 선보이며 해외 순회상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 보자르미술관 상영 및 관객과의 대화



△ TIFF 시네마테크 상영 및 관객과의 대화

전주시네마프로젝트는 장편 영화 제작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주국제영화제의 핵심 산업 프로그램이다. 독립·실험·예술영화의 제작부터 유통·배급까지 폭넓게 지원하며, 해외 작품의 경우 제작·투자와 함께 국내 배급까지 전주국제영화제가 담당해 왔다. 2014년 시작 이후 현재까지 총 40편의 영화를 제작했다.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이전에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디지털 삼인삼색을 운영하며 매해 3편의 단편 옴니버스 작품을 제작하고, 국내외 유수의 감독들을 초청해 다채로운 작품 세계를 선보인 바 있다.

올해 TIFF 시네마테크에서는 'TIFF and Korea Story Festival present JEONJU Projects'를 타이틀로 전주 시네마프로젝트 장·단편을 소개했으며, 보자르미술관에서는 별도 큐레이션을 통해 작품들을 선보였다. 또한 문성경 프로그래머가 참석해 전주시네마프로젝트의 취지와 상영작에 대해 설명하며 관객들과 소통했다. 이번 특별 상영은 전주국제영화제가 지향해온 독립영화 정신과 고유한 정체성을 국제 관객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TIFF 시네마테크에서 선보인 작품은 장편 부문에서 기요르기 폴피 감독의 <자유낙하>, 김대환 감독의 <초행>, 다네 콤렌 감독의 <애프터워터>, 이승원 감독의 <세자매>, 테드 펜트 감독의 <아웃사이드 노이즈> 등 5편이, 단편 부문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인플루엔자>,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감독의 <세계의 욕망>, 홍상수 감독의 <첩첩산중> 등 3편이 상영됐다. 보자르미술관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인플루엔자>, 홍상수 감독의 <첩첩산중>, 김대환 감독의 <초행>, 장우진 감독의 <겨울밤에>를 선보였다.



△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순회상영작 스틸

TIFF 프로그래밍 디렉터 로빈 시티즌(Robyn Citizen)은 “전주시네마프로젝트와 TIFF 관객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고자 이번 작품들을 선정했다”라며 “다양한 영화적 목소리를 담아낸 이번 큐레이션을 통해 관객들이 전주국제영화제만의 대담하고 독창적인 예술적 정체성을 경험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그간 각 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예술영화 중심지들과의 협업을 통해 특별 상영 프로그램을 꾸준히 확장해 왔다. 라틴아메리카 예술영화의 거점인 아르헨티나 레오폴도 루고네스 영화관(2023), 스페인 국립소피아아왕비예술센터(2024), 독일 아르세날 극장(2024), 멕시코국립시네테카(2024), 영국 런던 현대미술관(2026)에 이어 올해 TIFF 시네마테크와 벨기에 보자르미술관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며 세계 주요 예술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넓혀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해외 상영을 넘어 전주시네마프로젝트를 매개로 한국 독립영화와 전주국제영화제의 정체성을 세계 무대에 알리기 위한 중장기 국제화 전략의 일환이다.

전주국제영화제 문성경 프로그래머는 “전주국제영화제는 제작자로서 영화제의 창의적 성과를 알리고 대표 프로그램인 전주시네마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순회상영을 더욱 확대해 나가며 전 세계 영화 관객들과 공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순회상영은 국내에서도 이어질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지원작을 선보이며, 국내 관객들이 전주시네마프로젝트의 성과를 다시 한번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순회 상영 리스트

※ 행사 일시 순

상영 장소 및 협업 기관	국가	행사 일시
벨기에 브뤼셀 보자르미술관 BOZAR(Centre for Fine Arts, Brussels)	Belgium	2026. 5. 27. - 5. 29.
TIFF 시네마테크 TIFF(Toront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Cinematheque	Canada	2026. 5. 21. - 5. 26.
영국 런던 현대미술관 ICA(Institute of Contemporary Arts, London)	UK	2026. 2. 11.
멕시코국립시네테카 Cineteca Nacional de México	México	2024. 4. 3. - 4. 11.
독일 아르세날 극장 Arsenal - Institute for Film and Video Art E.V	Germany	2024. 2. 1. - 2. 15.
국립소피아왕비예술센터 Museo Nacional Centro de Arte Reina Sofía	Spain	2024. 1. 25. - 2. 29.
레오폴도 루고네스 영화관 Sala Leopoldo Lugones	Argentina	2023. 12. 5. - 12. 16.